

여수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여수음악제' 2~7일 GS칼텍스 예올마루 개막연주 '정명훈의 오르간 심포니' ... 손민수·박규희 등 무대

‘여수, 바다 그리고 음악’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6회 여수음악제’가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여수 GS칼텍스 예올마루와 여수시청 문화홀,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음악제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공연으로 일상을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무대다.

이번 공연은 개·폐막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시리즈, 찾아가는 연주회 시리즈, KBS교향악단 체임버연주회 시리즈 등 여수 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개막식 지휘는 정명훈이 맡는다. 2일 오후 7시 30분 예올마루 대극장 열리는 개막연주는 ‘정명훈의 오르간 심포니’로 영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벤자민 그로브너와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이 함께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인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E단조’와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인상적인 생상스 ‘교향곡 제3번 E단조 오르간’을 들려준다.

3일 열리는 특별연주회 시리즈1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손민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리스트 ‘12개의 초절교 연습곡’ 무대를 선보인다. 화려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제 4곡 ‘마제타’를 비롯해 ‘폭풍’, ‘도깨비불’, ‘사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리즈2 공연은 4일 ‘드라마 속 클래식’을 주제로 안두현이 지휘를 맡아 진행한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중 비제 ‘카르멘 환상곡’, ‘육룡이 나르샤’ 중 ‘무이이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 ‘메인테마’와 ‘좋은 날’, ‘태양의 후예’ ‘Always’를 들려준다.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김,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협연하며 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KBS교향악단의 체임버 시리즈 공연은 3일(오후 7시 30분)과 4일(오후 2시, 7시30분) 세차례에 걸쳐 예올마루 소극장에서 열린다. 기타리스트 박규희,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가 각각 무대에 협연자로 나선다.

박규희는 교향악단과 함께 ‘비발디 류트 협주곡 D장조’, ‘소르 마술피리 주제곡 변주곡’, ‘알베니스 아스투리아스’를 들려준다.

박종성은 아들러 ‘제네비브’, ‘포레 파반느 작품번호 50’, 바칼로프 ‘일 포스티노 메인 테마’를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손민수



지휘자 정명훈



미래의 유물 '돼지저금통'

무등현대미술관서 열리는 이정기 개인전

이정기 개인전, 13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우리의 모든 것은 미래의 유물로 남는다.’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적 실험을 멈추지 않는 이정기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다. 유물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이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미래에 어떻게 남을 것인지 모를 일이지 그는 미래에 유물이 될 것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그가 이번에 소재로 삼은 것은 어릴적 누구 집이나 하나쯤 있었을 돼지저금통이다.

이정기 작가 개인전이 오는 13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현재인: 불확실한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전시장을 가득 채운 대형 돼지저금통 조형물과 더불어 줄지어 좌대 위에 놓인 돼지저금통 형상들을 배치했다. 또 자연 속에서 촬영된 돼지저금통 이미지를 출력한 인쇄물을 전시장 벽면에 부착했다.

돼지저금통 형상은 ‘미래에 발견된 유물의 형식’을 띄도록 연출된 덕에 관람객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전달한

다. 오늘날 효용과 유용 가치가 없어지는 동전처럼, 저금통 역시 사라져 가는 한 시대의 상징물로 표현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 작가는 산업의 고도성장과 물질적 풍요에서 저금통, 저축, 절약이라는 개념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크고 작은 돼지저금통으로 표출했다”고 말한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정기 작가는 광주미술상, 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했으며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빛전에 선정됐다. 광주시립미술관 국제제지던시 첫 입주작가로도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빨간 모자와 늑대’ 클래식으로 만나요

광주문예회관, 4일 공연마루

‘명작동화와 클래식의 만남’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동화음악극 ‘빨간 모자와 늑대’(사진)가 오는 4일(오전11시·오후3시) 광주문예회관에서 상연된다. 이번 작품은 그림 형제의 ‘빨간 모자와 늑대’를 최원선 작곡가가 동화 음악극으로 각색해 어린이를 위한 키즈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원작인 그림형제의 ‘빨간 모자와 늑대’를 토대로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음식 바구니를 들고 길을 나선 빨간 모자 꼬마아가씨가 늑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토리텔러 변신영의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와 귀여



운 일러스트 영상과 클래식인 앙상블의 연주가 더해져 눈과 귀가 즐거운 동화 음악극을 선사한다. 작품은 ‘길 떠난 빨간 모자’, ‘늑대가 할머니 집에’, ‘집으로 돌아온 빨간 모자’를 비롯해 총 16곡의 클래식 창작곡들로 채워진다.

클래식인 앙상블은 ‘젊은 음악, 재미있는 클래식’을

지향하는 연주단체로 줄리어드, 맨해튼, 메네스 대학 출신의 연주자들로 2007년 결성됐다. 이번 공연은 작곡가 최원선, 바이올린 최유진, 비올라 이은원, 첼로 장혜리, 클라리넷 오유선, 피아노 김활란이 참여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3.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류재웅 작 '살피'

영암사람들, 시간을 걷다

월출미술인회, 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1993년 영암 출신 화가 35명은 ‘구정화’를 창립했다. 회원 작가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영암을 알리기 위해 출발한 모임은 이후 2009년 ‘월출미술인회’로 이름을 바꾼 후 영암 출신 화가를 한 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월출미술인회’가 한 단계 도약한 건 2016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최된 ‘남도문화 원류를 찾아서’ 기획시리즈가 시발점이었다. 단순히 작품을 출품받아 전시회를 꾸리는 평범한 그룹전 대신, 영암을 상징하는 ‘한가지 주제’를 정해 전시를 진행했고, 각각의 작품은 지역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며 의미있는 결과를 남겼다.

월출미술인회 기획·운영위원회는 회의와 토론을 거쳐 매년 영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에서 주제를 선정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참여 작가와 함께 워크숍과 답사를 진행하고 작품을 제작한다. 지금까지 ‘영암, 시간을 걷다-전통마을 노거수’, ‘월출산 산책하다’, ‘영암 오일장을 찾아서’, ‘살의 흔적-축적된 시간’, ‘村-마을’ 등을 주제로 기획전을 열었다.

월출미술인회(회장 류재웅)의 2022년 전시가 오는 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

호갤러리에서 열린다. 같은 주제로 지난 6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서 오는 11월 13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올해 전시 주제는 ‘영암사람들’이다. 영암을 터전으로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사는 사람들을 모티브로 작품화한 전시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미디어 등 60여점이 나왔다.

참여작가는 김미희·김민자·김병현·김인화·류재웅·문명호·문형선·민형기·박문수·박인주·송지윤·이선희·정선휘·정현숙·조병연·최인경·최정희·최찬수 작가 등 25명이다. 이번 기획전은 영암 인물의 과거, 현재, 미래와 그 정신을 찾아보려 준비했다. 작가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다양한 영암 인물에 대한 단순 묘사를 넘어 삶을 지탱해 온 이들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작품에 풀어냈다.

작품 속에는 조훈현·하춘화·김장조·하정웅 등 유명인들도 등장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모습이 가득 담겼다. 장날 만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고향을 찾아 따뜻한 위로를 받는 사람들, 늙은 부모님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달빛이의 사랑II'

‘희망·행복 담은 꽃 이야기’

윤해옥 개인전, 2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전시장에 소박한 꽃들이 가득 피었다. 꽃을 볼 때면 그 자체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꽃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꽃말’에도 마음을 빼앗긴다.

여러 꽃말 가운데 ‘희망’, ‘행복’의 의미를 담은 꽃들을 모은 전시회가 열린다.

윤해옥 작가 개인전이 오는 21일까지 영산강문화관에서 열린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박종덕)·KWECO 영산강문화관(김정호)이 개최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전시로 윤 작가는 ‘행복한 꽃 이야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달맞이꽃, 도라지꽃, 아카시아꽃, 유채꽃 등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 영산강 주변과 우리 삶 속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꽃들이다. 자연의 편안한 색깔

을 그대로 풀어낸 담백하고 소박한 그림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윤 작가는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댁 정원 가득히 피어있던 꽃을 그리면서 꽃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음의 눈으로 꽃을 바라보며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캔버스에 담는다.

윤해옥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남도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송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황토 드로잉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전시 기간 중인 21일에는 ‘행복한 꽃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강연도 열린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